

# 08월호

## Contents

제10기 광복센터 10막고 4장, 5장, 6장을 진행하며.....	2
영화 '부산행' 관람하며!	6
'센터 돋보이기 (외부평가)', 후기!	8
장애계분류 제정방향을 모색	10
자조모임 보치아 4차 모임	12
주택개조 실사 진행기	14
일본 장애인 수용시설 전격 지원 결부림 사례사건	16
이달의 시	18
이달의 정보	20
광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CMS자동이체 신청서	22
평화의 소녀상	23
광고	24



# 제10기 강북센터 IL학교 4강, 5강, 6강을 진행하며…….

문지수



07월 01일 14:00-17:00, 강북문화예술회관 3층 세미나실에서 ‘제10기 강북장애인자립 생활학교(이하 강북센터 IL학교)’ 4강을 진행하기 위해 오늘도 김도현 실습 선생님과 나는 3층 세미나실에서 포스터를 들고 분주히 움직이며 자리 배치도 하고, 김성운 인턴선생님과 함께 현수막도 달고, 강의에 필요한 노트북 설치와 스크린 체크도 하며 강의가 잘 진행되도록 완벽히 준비를 하였다.

이번 4강을 강의하실 강사 분은 연형국 변호사님이시고, 주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이다. 장애인 복지법이란? 장애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재활과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하고,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란? 장애를 사유

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염형국 변호사님께서서는 너무 조용하게만 듣는 참석자분들에게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관련하여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퀴즈 형식의 질문을 하여 참여자분들에 대답을 유도하였다. 내가 재작년 쯤 뉴스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 2인조가 성인 장애 남성을 폭행한 사건이 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는 뉴스에 나오지 않았고, 그 여중생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청소년 보호법으로 큰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현실은 아직도 참혹하고, 법이 강화되지 않으면 이 참혹한 현실은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 날짜는 07월 22일 강북센터 IL학교 5강을 진행하였고, 5강을 강의하실 분은 이석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 정책위원장님이시며, 강의 주제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의 이해'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 많이 접하지 못했으니 생소하면서도 의문점과 함께 세계

기구인 유엔이라는 곳은 타나라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곳이고, 영어를 기본으로 사용하므로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강사님의 섬세한 설명을 통해 한결 나의 의문점들이 시원하게 풀리는 듯하였다.

우리 주변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편의시설은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음식점, 옷가게, 하물며 관공서까지……. 기본적인 경사로는 물론이고 장애인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아니, 백가지도 넘게 말도 못하게 많을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법의 개편도 개편이지만,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어렵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법의 개편으로만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6강 역시 강북문화예술회관 3층 세미나실에서 열렸으며, 07월 29일 14:00-17:00까지 강의를 이어졌다. 6강을 진행하실 강사님은 숭의여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강우진 교수님이시며, 주제는 나의 권리를 찾아서 - 집합행동과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내용이었다.



집합행동이란?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사회규범이나 사회통제와 같은 요소들에 의해 제약 받지 않고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다수의 사람들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말하며 좋고 나쁨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시민사회운동이란?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나타난 사회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국에서는 민주화운동, 반전 운동, 농민운동, 소비자운동, 환경 운동, 노동 운동, 인권 운동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운동이 나타나있다.

6강을 진행한 강우진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상 중 인상 깊게 남은 영상자료가 두 가지를 말하자면 '등대지기' 영상 자료와 미국에서 장애 인권 운동한 영상 자료이다. '등대지기' 영상 자료는 시각 장애인이지만 자신의 일을 깨끗이 하며 자신의 일을 좋아하고 밤에는 꼭 공부를 해서 '주경야독 (晝耕夜讀)과 등대지기에게는 '마음의 눈'으로 등불을 보았을 것 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미국에서 장애인권 운동하는 영상 자료를 보면서도 한국의 장애 이동권 투쟁 영상이 떠올랐다. 자립 생활학교 참여하신 참여자 분들 영상 자료를 보시며 많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추측된다.

지금 이 소식지 기사를 보고, 듣고 계실 모든 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다.

"Lights in your mind I hope to have hope because it's always really begun to shine."  
"あなたの心の中に明かりがいつも光を放っているから希望を持ったらと思います."  
"당신의 마음속에 등불이 언제나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영화 '부산행' 관람하며!

박계형

유난히 덥고 습하다 못해 비가 곧 쏟아질 어느 흐린 날, 07월 23일 토요일, 수유 메가박스 영화관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화 : 부산행' 집단LP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부산행이 어떤 영화지?”

“좀비가 나오는 영화라고 그러는데?”

“기대된다~!!”

재밌을 것 같아!!”

14:25분부터 영화 상영 시간을 위해 입장하였다.



여기서 잠깐! 지금 이 소식지를 읽고 계실 독자 분들께서 '영화 : 부산행'이 무슨 영화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알려 드리고자 한다.

'영화: 부산행' 은!!! 한국 영화이며 좀비가 나오는 공포 영화이고 부성애를 그린 감동이 있는 영화다.



기나긴 영화 상영이 흐르고 흘러..... 상영관에서 나오는데 참여자분들께서 오늘 상영한 '영화 : 부산행'에 대해 호의적이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만큼 인상 깊으면서도 주인공과 주인공의 딸 사이와의 애틋하고도 슬픈 면모를 보여주기 때문



이다.

주인공과 주인공의 딸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부모가 일 때문에 아이와 많이 놀아주지 못하고 소홀히 하는 걸 영화에서도 보여준다.

소식지를 읽고 계실 독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아이 입장에서는 아마 서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이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는 독자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한참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러분은 고귀한 보석과 같다.

The most beautiful thing is for her child in your mind.

世界で最も美しいのは子供を愛する皆さんの気持ちです。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이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 ‘센터 돈보기 (외부평가)’ 후기!

문지수



07월 14일 목요일 14:00 - 18:00 (오후 2:00 - 6:00),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내 회의실에서 도봉노적성해자립생활센터 황석재 사무국장님께서 제 1차 센터돈보기 평가 프로그램의 외부 전문가로써 서류를 검토하셨다.

부족한 서류 있으면 만들고 그랬었지만 외부 전문가가 평가를 하는 거니까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황석재 사무국장님께서 회계 서류, 프로그램 서류 등 통틀어서 매의 눈으로 모든 문서를 보시고 계셨다.





서류를 다 보신 황석재 사무국장님께서 우리 센터의 서류를 본 결과를 말씀하셨다.

열심히 준비한 거랑 다르게 평가가 그리 썩 좋지 않았다.

평가 내용은 이러했다.

세부사업 계획서 세부별로 간단히 작성하고 사업 프로그램 관련 기획 회의 2,3명 이상으로 하여 회의한 후 회의록 작성 필요하며 사업 프로그램 진행 전 실행계획서 작성해야 한다. 프로그램 보도자료 발송 시 어디에 발송되는지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하며 보고서 작성 시 날짜순으로 홍보 부분 기재해야 한다. 설문지는 상/하반기 나눠서 최종적으로 통계하여 기재, 서류 오타 부분 새로 출력해서 편철해야 한다. 사무 용품을 비롯하여 수량 파악될 수 있게 사진 촬영해서 회계 서류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차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 장애기본법 제정방향 모색

허성현



2016년 7월 20일 (수) 15시부터 17시까지 미름센터 미름홀에서 장애기본법제정 추진연대가 주최하고, 한국DPI,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장애기본법 제정방향 모색을 위한 “장애법령 체계화 및 장애인정책법률 실효성 담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강북센터에서는 박동열 사무국장, 허성현 기획팀장, 전난희 홍보팀장, 문지수 간사, 김성운 인턴, 김소연 활동보조인 등 총 6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DPI 김대성 회장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 인사 말씀 후 한국DPI 임상욱 조직국장의 “장애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역사”라는 주제로 경과보고를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임국장은 우리나라 장애관련 법률의 모순을 극복하고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무엇보다 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에 부합하는 장애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전담부서, 조정기구, 독립기구에 대한 조항을 국내법에 담아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임국장의 뒤를 이어 전동일 강원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기초발제가 있었다. 기본법 제정 필요성 및 목적, 장애기본법 성격, 장애관계법령을<장애인차별금지법과 권리구제에 대한 총 6장 42조로 구성하는 것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장애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목적으로는 변화된 국제사회 장애패러다임 반영과 국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실정법화, 실효성 있는 장애정책수립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근거 마련을 들었으며, 개별법들의 정비에 기여, 장애법령체계화, 장애라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칙, 방향, 정신을 담고자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장애기본법 성격을 장애관계법령의 상위법으로 하고, 헌법을 최상위 법으로 하여 사회법의 영역에 속하며 장애관계법령을 아우르는 상위법적인 성격을 갖는 기본법으로 하는 것과

장애관계법령을 <장애인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으로 이원화 하여 두 법에 기본법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표가 있었다.

두 번째 발제는 이석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 정책위원장이 맡으셨다. 장애기본법 체계 및 제정방향에 대해 선언적인 철학과 이념만이 강조되지 않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을 제시하고, 각 영역별 법령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달성 및 효과, 타 법령과의 연계성, 성과에 대한 연구와 대안사례제시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위원회의 구성은 장애유형과 성별이 고려된 장애인단체를 대표하는 자, 장애인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자, 각 영역별 전문위원으로 구성하여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장애인당사자 정수를 50% 구성(전문가는 해당영역에서 자문을 하도록 함) 할 것과 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명문화 하는 것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뒤를 이은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장애기본법 체계 및 제정방향에 대한 발제는 다음과 같다.

- 1차적 장애관계법령의 상위법으로 위치 지움
- 장애를 사회정치적으로 정의
- 일반법과 특별법 간의 적용상의 우선순위에 관련하여 장애기본법 제5조 1항에서 장애기본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에 대한 모순과 애매모호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정책 운영 원칙 전달체계를 현행의 사회보장기본법 제 25조(운영원칙), 제 29조(사회보장전달체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모순이며 이 조항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음.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조정)를 그대로 준용하는 것 또한 실익이 없음.
- 권리구제에 관한 내용이 기존의 장애 관련 법령과 비교하여 별반 다르지 않음.
  - 장애기본법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수단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인권 침해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옹호제도(P&A system)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장애인복지법 정비 방안의 보강 내용과 장애인복지법 이외의 법률이 장애기본법 제정 후 어떻게 개정 될 것인지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음.

열띤 토론회는 3시가 되어서야 끝났다. 앞으로 이런 논의의 장이 더 많이 마련되어 장애인기본법이 장애대중의 바람을 아우르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탄생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 자조모임 보치아 4차 모임

김소연

2016년 07월 30일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에서 회원님들과 모여서 보치아 경기를 하였습니다.

먼저 도착한 스탭들은 회원님들의 간식과 준비물들을 챙겨 먼저 복지관으로 출발하였고, 회원님들이 오셔서 바로 보치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셋팅도 하고 이 여름이 오시느라 더우실 거 같은 회원님들을 위해 에어컨을(빵빵?)하게 틀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10시가 다 되어서 한 분 두 분……. 회원님이 오셨고, 어느 때 보다 보치아 게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참석해 주셨으며, 국가대표 선수이신 황성준 회원분이 보치아 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심판도 봐 주셨습니다.



단체게임을 팀별로 나눠 경기를 하였고, 개인전은 2인1조로 경기를 하였으며, 흙통을 이용하시는 회원분과 직접 손으로 던지시는 회원님들이 섞여 다양한 방법으로 보치아 게임을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간 휴식시간에는 간식으로 빵과 우유를 함께 먹으며 다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준비하였습니다.

단체게임을 마치고 휴식시간을 가진 다음, 개인전 2인1조로 나눠서 게임



을 하였고,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들의 응원 덕분에 다른 어느 때 보다 흥미진진한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단체전과 개인전을 하는 사이 시간은 어느새 12시가 되었고,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지하 1층에 자리 잡고 있는 식당에서 짜장면을 주문하여 회원님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며 즐거운 식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보치아 4차 모임이 재미있으셨는지 다음번 보치아 5차 모임에도 꼭 참석하고 싶으시다는 회원님들이 다수 계셨고, 다른 회 차 때 보다 인원이 많아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텐데도 이렇게 격한 호응을 주셨던 참가자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쉬워하는 참여자 분들을 그냥 보내기가 아쉬워 저희 센터 간사님 한분이 “오늘 시간 되시는 참석자분들은 영화관람 같이 하시는 게 어떨까요?”, “비용은 각자 자부담입니다.”(^^;)라고 제안하셨고, 영화 관람을 하기 위해 시간되시는 참여자분들은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수유점 메가박스에서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보고 난 후 다음 보치아 모임 날짜와 시간을 공지하고 다음에 또 뵙자는 인사와 함께 각자 댁에 돌아가셨으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보치아 게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신 회원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에 진행 될 보치아 5차 모임 때에도 꼭 뵙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주택개조(리모컨스위치) 실태조사를 갔다 와서…….

김성운



8월 2일 오전 10시에 노원구에 위치한 주택개조(리모컨스위치)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주택개조 실태조사는 이영훈 선생님과 제가 한 팀을 이루어서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출발하여 주택개조(리모컨스위치)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신청자와 약속한 시간이 오전10시라 20분쯤 먼저 도착하였습니다.

리모컨스위치 신청자의 집에 갔으나 없어서 전화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부탁을 받으신 직장동료 분께서 와주셔서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리모컨스위치 신청자께서 없어서 리모컨스위치 설치 관련하여 사진촬영만을 하였습니다. 직장동료분의 설명에 의하면 “주택개조(리모컨스위치) 신청자께서 뇌성마비장애인이라서 하지를 쓰지 못하셔서 비장애인위주로 편의가 되어 있는 자신의 집을 사용하시는데 많은 불편을 겪으신다.” 고 하셨습니다. 전등 스위치 또한 사용하시는데 많은 불편을 겪어 효자손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스위치를 켜고 끄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영훈 선생님과 저는 신청자가 안 계셔서 신청자를 만나서 주택개조 신청서 받고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청자와 연락을 해서 신청자의 직장에 방문하였습니다. 신청자의





직장에 방문했을 때 신청자가 반갑게 이영훈선생님과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주택개조 리모컨스위치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신청서를 받고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이영훈선생님과 저는 신청인에게 리모컨스위치 설치 관련하여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리모컨스위치 설치 신청자께서는 뇌성마비장애인이어서 주택개조 관련하여 리모컨스위치 설치를 신청한 것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인위주로 편의가 설치되어 있는 집이 불편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에 리모컨스위치 설치 신청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영훈 선생님과 저는 리모컨스위치 설치 신청자에게 신청서를 받고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복귀하였습니다.

이번에 하는 주택개조 리모컨스위치는 도어락과 함께 이런 편의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하는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바람직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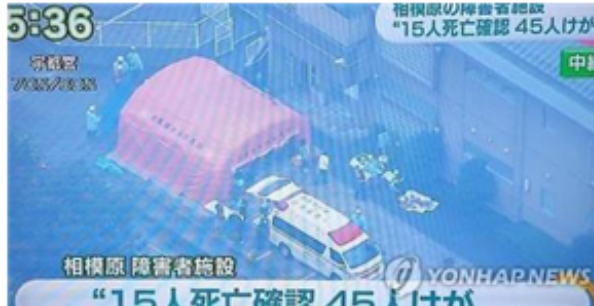
장애인들의 생활공간에는 장애인들에게 맞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개선해주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개조 리모컨스위치 설치 관련해서 신청한 분들 중에서 리모컨스위치 등이 필요하신 분에게 리모컨스위치 같은 주택개조서비스가 제공되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택개조에 참여하게 되어서 뜻 깊고 보람된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 일본 장애인 수용시설 전직 직원 칼부림 살해사건

전난희



사건이 발생한 수용소를 촬영한 NHK 화면

지난 7월 26일 일본 가나가와 현 사가미하라에 있는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20대 청년의 칼부림으로 살해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교도통신은 19명이 사망했고 부상자 가운데 20명이 중상이라고 전해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옴진리교의 사린가스 살포 사건 사망자 수를 증가하는데다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일본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고, 용의자인 무에마쓰 사토시는 쓰구미야마유리엔에 근무한 적이 있으며 “장애인은 없어야 한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곳에서 근무하다가 3~4년 전에 그만뒀으며 시설에서 일하던 중 입소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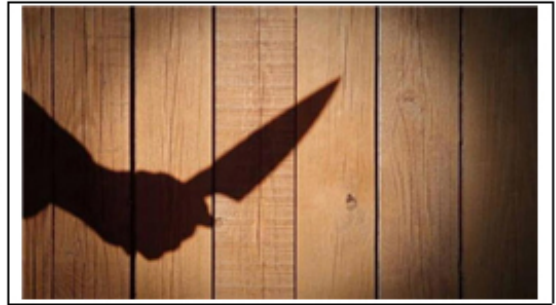
일본 장애인 수용시설 전직 직원 칼부림 살해사건에 대한 뉴스를 찾아보는 도중 이런 기사를 보았다. 『무에마쓰 사토시는 올 2월 18일에 쓰구미야마유리엔 시설 관계자에게 “중증장애인 대량살인은 일본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말을 들은 쓰구미야마유리엔 관계자가 2월 19일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에게 무에마쓰는 같은 발언은 법에 따라 정신질환이 의심되므로 강제 입원인 ‘조치입원’ 처리되었고, 그는 병원에서 ‘대마 정신병’과 ‘망상성 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담당 의사가 “후유증세가 없어졌고 반성하는 발언 하여 3월에 퇴원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무에마쓰씨가 중증장애인들을 무참히 살해한 이유는 ‘대마 정신병’과 ‘망상성 장애’로 인한 이유와 자기를 퇴직처리 한 쓰구미야마유리엔에 대한 분노심이 합쳐져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혐오증이 발생 되면서 칼부림 살해사건이라는 끔찍한



결과로 나온 것이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 과연 중증장애  
인들은 자기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듯 죽  
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걸까?



모든 중증장애인들이 죽지 못해 살아간  
다고 말할 순 없지만, 자기에 의지대로 손가락하나 까딱하기 힘든 장애인의 삶이  
결코 행복감과 만족감으로 살아간다고는 보기 힘들다.

중학생 때부터 나는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용기는 없고, 사고(교통사고,  
건물붕괴 등)를 당해 내 목숨이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으며, 그 생각은 지금  
까지도 변함이 없다.

사회는 물론이고 가장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하는 가족들조차도 나에게 '넌 몸이 불  
편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든지, '몸도 불편하고 힘드네 일을 다닐  
수 있겠어?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나는 '내가 왜 어디가어대서', '몸이 불편해도  
얼마든지 일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편견들과 부조리함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내 자신과도 싸워나가야만 하는 상  
황들이 너무 힘들어 내 생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  
건을 바라 볼 때, 우에마쓰씨에게 죽임을 당한 중증장애인들 중에는 그에게 고맙다  
는 말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마지막으로 말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여기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과 생각에 의  
해 글을 작성한 것이라는 걸 말이다.

이미지&자료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27002011>

<http://m.media.daum.net/m/media/world/newsview/20160726061544083>

<http://amanda2014.blog.me/220771997492>

[본 글은 본인에 개인적인 생각일 뿐 센터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이달의 정보

## 장애인 대상 '공무원시험 면접캠프' 개최

오는 8월 2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오는 8월 27일 공단 본부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공무원 및 군무원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2016년 장애인 면접캠프'를 연다.

지난 1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장애인 공무원 면접, 이렇게 준비하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면접캠프에서는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공채 및 경채를 준비하는 장애인 뿐 만 아니라, 국방부의 장애인 군무원 공채 및 경채를 준비하는 장애인 40명을 모집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당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매년 하반기에 군무원 준비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면접캠프를 진행해 왔으나, 공무원 및 군무원 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서비스 대상을 공무원과 군무원 준비 장애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면접캠프는 최근 공무원 공채 및 경채의 면접이 강화되면서 개별면접 뿐만 아니라 5분 스피치, 주제발표, 집단토론 등까지 추가되고 면접시간도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공무원과 군무원을 준비 중인 장애인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면접캠프에는 초빙된 전문 면접강사가 '강화되는 공무원 심층면접,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며, 공무원과 군무원으로 그룹을 나누어 5분 스피치와 개별 모의면접을 실시하는 등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박승규 공단 이사장은 "우리 공단에서는 장애인들의 공직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면접캠프는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면접을 준비하는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 한다"라며 "필요할 경우 횡수를 늘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공무원과 군무원을 준비하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준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견적캠프 참가 희망자는 오는 8월 12일전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사전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40명 선착순 접수므로 캠프 참가 희망자는 서둘러 신청을 하도록 한다.

사전 참가신청은 인터넷 워크투게더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면접캠프 배너를 클릭한 후 내용에 첨부된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류를 공단 이메일 혹은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공단 본부 기업지원부 031)728-7270로 하면 된다.

출처-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70>

## 한성백제박물관, 장애인·외국인 대상 하반기 교육프로그램

한성백제박물관(관장 미인숙)은 8월17일부터 12월9일까지 '2016년 하반기 희망계층과 외국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희망누리 박물관'과 '다(多)함께 박물관', '외국인 한국역사문화체험'으로 짜였다.

'희망누리 박물관'은 장애인단체 대상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백제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린다. '다함께 박물관'은 다문화가족·단체 대상이며 한성백제의 식생활을 배우고 한국식 만두를 함께 빚어본다.

'외국인 한국역사문화체험'에서는 서울의 2000여 년 역사를 함께 살펴보며 '찾아가는 박물관'은 박물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및 다문화 단체 기관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전화와 이메일(02-2152-5833, [baekje@seoul.go.kr](mailto:baekje@seoul.go.kr))로 언제든 할 수 있다. 일정 및 장소는 박물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2728299>

# 청춘

유희경

다음은 없다

이것이 청춘에 대한 합당

하고 유일한 정의이다

온 밤을 뒤져 단 하나의

감정을 찾아보지만

나는 언제나 그럴듯하게

실패할 뿐

유희경, 『청춘』 중에서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CMS자동이체 신청서

<b>◆ 수납업체 및 목적 (수납업체 기재란)</b>			
수납업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납목적	회원회비
대표자	정종남	사업자등록번호	210-82-68864
주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906호		
<b>◆ 자동이체 신청내용 (신청고객 기재란)</b>			
신청정보	신청인	예금주와 관계 : ( )	연락처
	납부금액	<input type="checkbox"/> 고정금액 ( ) 원 <input type="checkbox"/> 변동(추가 계약내용에 따름)	납부일 매월 25 일 *이날시 일, 일 재출금
금융거래정보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예금주생년월일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 목적 : 포성CMS 자동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 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 포성에프엠에스㈜, 금융기관(하만 신청가능은행 합조), 통신사(SKT, KT LGU+, CJ헬로비전)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게시(www.efnc.co.kr/제휴사 소개 메뉴 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이용 목적 자동이체서비스 제공 및 자동이체 동의 사실 통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 부터 자동이체의 종료일(해지일)까지. 단,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보관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제 3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자동이체 동의여부    동의지 안내 : 포성에프엠에스㈜ 및 금융기관은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예금주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동의 사실을 SMS(또는 LMS)로 통지합니다. 신청인(예금주)은 신청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회비 납부를 위해 포성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 16년 07월 회비납부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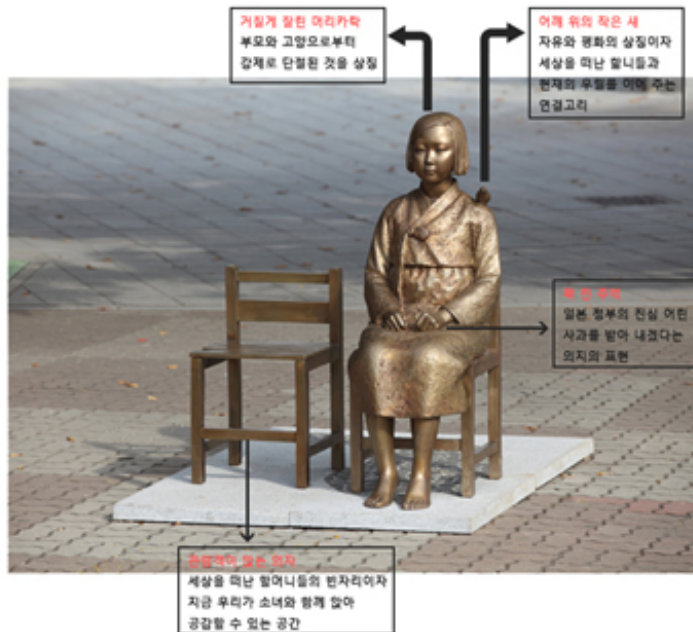
김낙현   김두용   김소연1   김소연2   김숙미   김석현   김은미   김은순   김용자  
 김종환   김종민   광광현   박계형   박남주   박동열   박시연   박민숙   배소영  
 손연숙   안해영   안병훈   이승준   이영석   이영숙   이영훈   이하용   이화선  
 임상욱   오재준   우의정   윤두선   장민정   전난희   정주영   최양호   최윤숙  
 최진균   황석재   홍점표

회비 납부에 감사드립니다.

# 평화의 소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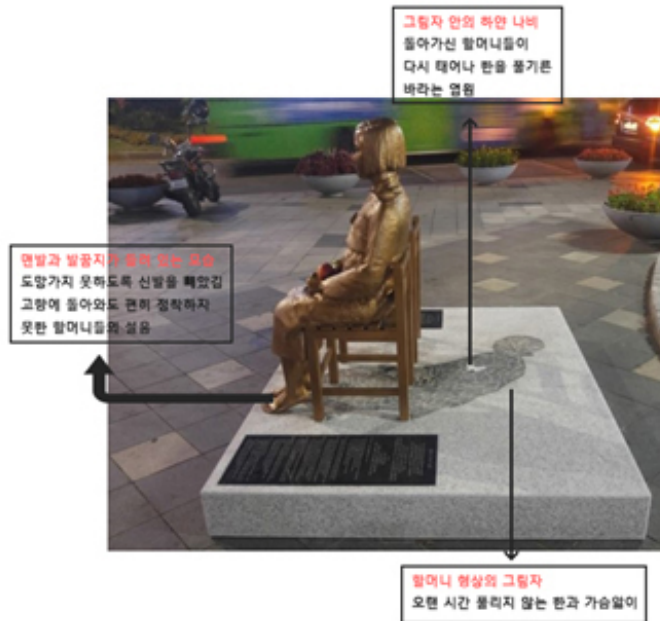
전난희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1000회를 맞은 2011년 11월 1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이 중심이 된 시민 모금으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세워졌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세운 동상으로, 부부 작가(김문성, 김서경)의 작품이다.



소녀상은 높이가 130cm이며 치마저고리를 입고 짧은 단발머리를 한 소녀가 의자에 앉은 채 일본대사관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군에 끌려갔던 14~16세 때를 재현한 것이다. 또 소녀상의 옆에는 빈 의자가 하나가 놓여 있는데, 이는 할머니들의 고통에 공감해 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평화비 표지석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직접 쓴 평화비 문구와 함께 “1992년 1월 8일부터 이곳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2011년 12월 14일 천 번째를 맞이함에, 그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잇고자 이 평화비를 세운다.”라고 적혀 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이후 국민 모금 등으로 전국 27곳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시립공원 등 해외 3곳에도 세워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외부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간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을 철거하고,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다시 거론하지 않을 것을 요구해 왔다. 특히 소녀상이 대사관의 보호 등을 규정한 빈 협약에 저촉된다는 논리까지 동원해 철거를 요구했다. 빈 협약 22조 2항은 “국가는 외국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2015년 12월 28일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관련 협상이 타결돼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가 화두가 됐다. 합의문은 위안부 소녀상 부분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과 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료 · 이미지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48346&cid=43667&categoryId=43667>

[http://blog.naver.com/goyang\\_sa/20169180854](http://blog.naver.com/goyang_sa/20169180854)

<http://blog.naver.com/hjkwon79/220788241919>



# 강북구에도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집니다.

지난 해 12월, 합의문조차 없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한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태평양 전쟁 시기에 벌어진 일본의 계획적이며 반인도적인 전쟁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국가 차원의 조직적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인륜적 범죄행위는 외교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한일협상에 대해 단호히 반대합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한반도, 나아가 인류의 평화와 소수자, 약자의 인권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조형물입니다. 우리 미래세대가 과거의 수치스러운 역사와 현재의 대한민국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힘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강북구에 건립하는 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기금 모금계좌  
- 국민은행 089502-04-200340  
최민규(강북구평화의소녀상)

□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 참여하기  
- <http://bit.ly/강북구평화의소녀상>

facebook. **BAND** 에서 '평화의 소녀상' 을 검색하세요.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

